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누가복음 11:5-13, 18:1-8

정운돈 목사님

서론 : 화요집회 메시지

(1) 세상 위기 막을 모임을 만들어라(전도제자훈련 메시지). 소그룹에 집중하라. 혼자 하면 힘들다. 팀이 되어야 성공한다.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되는 팀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세상 위기를 막는 팀이 된다. 교회 안에 다섯 가지가 없다. 첫째, 이방인의 딸이다. 생각의 딸을 낳혀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떨어져서도 안 된다. 그게 성령의 인도다. 둘째, 아이들의 딸이 없다. 셋째, 나그네의 딸이 없다. 교회 안에 와 있는 복지기관이 나그네의 딸이다. 넷째, 집중하는 딸이 없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다락방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체험하는 딸이 없다. 교회 안에서 교육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 안에 RUTC를 만들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것이다. 성경에 세 가지 RUTC의 내용이 있다. 제1 RUTC는 남은 자를 훈련시키는 모임이다. 언약의 후대를 훈련시키는 모임이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하는 것이다. 제2 RUTC는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회당, 서원처럼 지역에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제3 RUTC는 다니엘, 요셉처럼 정치, 경제, 문화로 파고드는 운동이다. 62가지는 어떤 것인가? 평생 성취시킬 말씀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한다. 나의 언약을 찾아야 한다.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각자의 사명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 천명, 소명,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남을 뿐이다. 이것을 찾아야 시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2) 교회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70인요원훈련 메시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도행전 2:42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 강단 메시지가 들려야 한다. 레위기의 제사를 생각해 보라. 제물을 잡을 때 심장을 찌르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씻고 불로 태웠다. 나의 심장에 말씀이 꽃혀야 한다. 완전히 도려내어져야 한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이 들리면 자라나게 된다. 말씀이 들려지면, 포럼을 하고 싶어진다. 처음에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과 포럼을 한다. 나중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새신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면서 램네프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되어지면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말씀이 들리고 포럼이 되고 응답받은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란다.

(3) 후대 위기를 막아야 한다(미션 홈 요원훈련 메시지).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영적 서밋이다. 요셉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이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와 문제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싸우느라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영적 서밋이 되어 후대에게 모델이 되시기를 바란다.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미션 홈,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본론

복음편지 1과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신자도 마찬가지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전도의 맛을 보아야 행복하다. 2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원죄 때문이다. 3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4과,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이다. 가정, 사회, 인류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뿐이다.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성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일날 돈 번 사람들은 결국 그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5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처음에는 듣는 단계다. 다음은 아는 단계다. 어느 순간 체험하는 단계가 온다. 누림의 단계 속에서 확신이 온다. 성령의 인도받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6과,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다. 끝까지 방해한다. 그래서 계속 예배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사단은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게 율법이다.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언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그렇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는 영적 싸움이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부족한 부분, 자범죄를 갱신하고 개혁하면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남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나의 잘못을 못 보면 발전이 없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만 주는 사람이 된다. 끊임없이 갱신하고 겸손하게 배워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제자로 쓰임받게 된다.

9과는 기도에 대해서다. 내가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9과 이야기는 너무 쉽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육신적인 것도 있다. 치유에 대한 것도 있다. 교회에 주신 응답도 있다(성진). 교단에 주신

응답도 있다(렘넢트). 우리나라에 주신 응답도 있다. 그러나 생각 해야 한다.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 하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요16:24).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 다만, 순서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1.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 (1)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한다.
 - ①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 ② 돌,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 ③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는가?
 - ④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우상),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 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고전10:20과 마24:11에 나타나 있다.
- (2)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한다.
- (3)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 ① 기도한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②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신다.
 - ③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휩쓸리지 마라.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의 주역이 되라. 믿음의 전통, 언약의 전통을 지켜 나가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격)

- (1)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 받을 수 있다(요1:12).
-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요16:24).
- (3)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다(시66:18).
- (4)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눅11:5~12).
- (5)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눅18:1~8).
- (6)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시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빌4:6~7).

3.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 (1)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소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 (2)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 (3) “나의 환경을”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 (4)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5)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다.

4.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은 증명이 가능하고 반복해서 재생이 가능한 것이다. 기도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과학으로 측정을 할 수 없을 뿐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가르친다. 최고의 과학은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

- (1)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눅11:13, 마12:28).
- (2)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된다(마12:28-29).
- (3)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된다(히1:14, 계8:3~5, 단10:10~20).
- (4)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에4:14).
- (5)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행10:1~19).
 - ① 창18:2~15 (아브라함)
 - ② 왕상19:5~7 (엘리아)
 - ③ 왕하6:13~17 (엘리사)
 - ④ 왕하20:1~10 (히스기야)
 - ⑤ 행1:10~11
 - ⑥ 행5:19~20, 10:1~4, 12:1~10
 - ⑦ 계1:1~20

결론

- (1) 50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자.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 100년의 응답을 향해서 붙잡아야 할 기도제목이 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겠다.
- (2) 우리는 유대인의 7가지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을 해야 하겠다. 전도자의 기도를 항상 누려야 하겠다.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집중하고, 답을 얻고 치유해야 하겠다. 기도를 깊이 하다가 답을 얻으니까 내가 치유되는 것이다. 말씀과 균형이 맞는 것이다.
- (3) 작은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캠프현장, 디락방, 지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전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도 주제에 맞게 계속 집중훈련을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